

# 도민의 뜻, 도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

**민** 선8기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이에 본보는 김 지사를 찾아 지난 100일간의 전북도정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Q.** 민선8기 전북도지사로 취임한지 100일 되었습니다.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 김관영의 새로운 리더십을 아낌없이 격려하고 응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정의 파트너로서 민선8기의 안정적 출발에 힘을 실어주시는 지역 정치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0일,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최적의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를 함께 이뤄나갈 인재들을 찾는데 몰두했습니다.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민의 바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도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다. 앞으로도 민심을 가장 먼저 듣고, 민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도정을 펼쳐왔습니다. 도정에는 유능하고, 도민께는 겸손한 도지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취임 100일 동안 가장 보람있던 일은 무엇입니까?

- 대규모 국가사업 4연속 유치에 제 기억에 남습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로 부기장 사업 선정, 국립호남권 청소년 다목적센터 익산 확충, 지역특화형 비자 시험사업 최종 낙점 등 단기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죠.

혼자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선 7기부터 준비가 잘 된 사업도 있었고 기초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도움도 뒷받침되었죠. 여당과의 협치가 큰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합심했기에 가능한 성과였어요.

변화를 향한 도민의 열망이 변화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의 에너지가 성과로 전환됐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할 때 그 힘과 역량이 훨씬 강해진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Q.** 내년 연속으로 성공한 사업들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

- 먼저, 8,000억 규모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새만금에 유치했습니다. 여권 도지사가 있는 경남과 충남과의 경쟁이어서 격정이 많았어요. 그러나 도지사인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유치에 대한 간절함을 보였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유치로 최고 시속이 1,200km에 달하는 미래 최첨단 교통수단을 전북이 설계하고 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만금은 항공과 철도, 항만과 자율주행, 하이퍼튜브가 공존하는 미래 교통망의 거점으로 발전하게 됐죠.

이어 광주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국립호남권 청소년다목적센터 익산 건립을 확정지었습니다. 전북 몫을 확실하게 챙겼고, 호남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질 터전을 전북이 선사하게 되었어요.

또한, 20년을 기다려 온 군산항 제2준설로 부기장 건설도 이뤄졌습니다. 전북의 유일한 국제교역 창구인 군산항이 더 넓어지게 되었어요. 최근 군산항이 연간 물동량 1,000만 톤 시대를 열었는데 2,000만 톤 시대를 향한 노둑돌을 놓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지역특화형 비자 시험사업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이 뿌리산업 스마트팜, 보건의료 등 우리 지역 특화 사업에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대통령에게 건의한 인구정책이 우리가 선도하는 사업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지역에서도 대한민국을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Q.** 민생이 힘듭니다. 지난 100일 동안 민생경제를 위해서 어떤 행보를 펼쳐보셨습니까?

- 인수위 단계부터 경제 비상대책을 마련했고, 취임 1주일 만에 1조2,212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비 사업이 포함된 예산안이 10년 만에 최초로 원안 통과됐어요.

농어업인의 면세유 인상분의 50%를 4개월간 지급하고, 비료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했



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용자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한 자금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삶에 관련된 일이라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폭염과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고, 쌀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 격리 건의, 도 자체 기금지원 조건 완화, 쌀 소비촉진 등의 운동을 이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도정을 펼쳐나갈 겁니다.

**Q.** 고시 3관왕 젊은 지사에게 거는 기대가 큼니다.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고시 3관왕이라는 이력 뒤에는 여섯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총선에서도 낙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은 실패의 경험들이에요. 도민 여러분께서도 제가 거둔 성공보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도전의 경험에 주목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민들께서는 제게 전북경제를 살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기업유치라는 목표에 사활을 걸겠다. 원 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실패의 경험에서 철저히 배우고, 작은 성공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규모를 키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 출신의 도지사라는 점도 심분 활용할 것입니다. 제도와 법이라는 테두리에 갇혀 한계를 미리 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벽을 뛰어넘겠습니다. 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정책의 추동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입니다.

이로써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를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기업 유치로 성장엔진에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겁니다.

**Q.** 취임 초부터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선히다는 평가가 주목이 있었어요.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이유, 무엇 때문인지요?

- 국회에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현장에 와보니 뚜렷하게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민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정치권이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을 때 국민들의 한숨과 고통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시절 별명이 '협상의 달인'이었을 정도로 협치를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그런데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되고 보니 그 중요성을 더욱더 뼈아프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위기와 고통 앞에서 여야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전북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누구든 만나,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도민과 민생이 곧 김관영 정치의 목표이고, 비전이며, 사명입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등 대규모 국가사업 4연속 유치 취임 100일 동안 보람있던 일**

**도민 안전·삶 관련된 일이라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속 대응**

**도민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만나 소통·협력**

**Q.** 국가예산 확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 정부 재정기조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됐습니다.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하향 조정되는 등 예년에 비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뛰고 있어요. 정부예산안에 전년 대비 2,773억원을 증액한 8조3,085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 군산항 제2준설로 부기장,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해양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전북발전과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과 의미 있는 신규 예산을 다수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대응 과정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산단제조혁신 기반구축, 새만금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국제태광도시산업화교 설립 등 도와 시군에 꼭 필요한 중점추진 사업을 선정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역 국회의원과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도와 시군 정치권의 삼각공조를 바탕으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께 하고 싶은 말씀은?

- 지난 100일간 전북의 미래 4년을 책임질 도정을 설계했습니다. 또 여러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들 성과는 설계된 도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의 도약과 상승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들도 변화할 것입니다. 도정의 혁신, 도민의 협력, 전북의 자신감이 어우러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변함없이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기자

## ▶ 사진으로 보는 김관영 도정의 100일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식



하이퍼튜브 부지 유치 공모 평가



전북도-한남체인 수출협약식